

신상품 개발에 얹힌 숨은 이야기(시리즈-6)

-미국서 개발된 결속방적사, 일본서 결실되어-

후지보(富士紡)는 2000년 9월 미국의 “옵티마(Optima)사”가 개발한 결속방적사인 폴리에스테르 85%, 면 15%의 흡수속건성(吸水速乾性)이 뛰어난 “드라이·릴리스(Dry·release)사”의 수입권과 상표 사용권을 독점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듬해부터 아시아지역의 생산을 완전 위탁받은 후지보는 자본 관계가 전혀 없는 타이의 방적공장에서 이 결속사를 생산하여 금년 봄부터 이 신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결속방적기는 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과 같이 차별화된 특수사를 만들기보다는, 속도가 매우 빨라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실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후지보가 생산을 맡기기로 한 타이 방적공장도 처음에는 보통 용도의 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후지보는 그 기계로 품질이 아주 좋은 고급 실을 생산하기로 하고, 후지보의 유능한 기술자를 파견, 기술지도를 하여 작년(2001년) 7월부터 결속방적사의 시방(試紡)을 개시하였다.

기술지도를 담당한 기술자는 무거운 책임을 혼자 지고, 서투른 타이말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술지도를 하였으나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만드는 결속방적사의 품질을 균일하게 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터무니없을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 체제”를 급조하였기 때문에 2002년 봄 상품 판매를 위한 납기를 겨우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후지보의 개발 담당자는 “이 정도로 놀랄 만큼 좋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었다”고 말하며, 미국에서 생산된 실보다도 훨씬 좋은 “부드럽고 표면이 깨끗한 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후지보는 본사 직영공장에도 결속방적기가 한 대(24추)있어 이를 활용하여 폴리에스테르 · 양모가 85/15로 섞인 “드라이 · 릴리스”로 상품화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